



“봉심정 보존·활용 방안 마련” 한목소리

197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활용 방안 토론회

이재의 5·18연구위원 “민주 역사 태동기 품은 장소”
민주화 역사·광주정신 교육 공간 활용 필요성 대두
운영덕 의원 주최·광주매일신문 주관...공론화 ‘시동’

지금은 흔적만 겨우 남아 있는 광주 남구 봉심동 제석산 자락의 봉심정을 복원해 민주화 역사·광주정신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97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민주인사들의 봉심정’ 주제발표를 통해 “봉심정의 역사적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민·관이 함께 보존·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5·6면

운영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이 연구위원은 광주지역 1960-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배경을 설명한 뒤 “1970년대 운동권의 보급지였던 봉심정의 중요성을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광주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광주지역 운동에서는 1970년대 봉심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권의 활동 행적 역시 버금가는 무게를 지닌다”며 “역사적 공간으로서 봉심정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슬한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화의 승리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바람과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봉심정은 1970년대 내내 정보기관의 눈을 피해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면서 “이 곳은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의 태동기를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영호 5·18진상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 박종찬 광주대 교수가 참여한 토론회에서도 봉심정의 역사성과 광주정신과의 연계, 보존·활용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2030세대들에게 봉심정이 필요한 이유 ▲지속

관리를 위한 사업 주제 마련 필요성 ▲봉심정 공간 복원 ▲아카이브 작업 ▲민주역사기념관·공원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토론회자들은 민·관 합동 방식의 봉심정 보존·활용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련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운영덕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재 방지 상태나 다른 없는 봉심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민주·인권도시인 광주의 새로운 정신적 자산으로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며 “봉심정이 복원되고 광주·전남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후대 세대에도 인식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본보 취재진은 당시 봉심정과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영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이곳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작업을 집중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1970-1980년대 광주지역 민주인사들이 모여 공부하고 토론했던 곳으로 광주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봉심정은 현재 철거 후 임시 건물만 남아 있어 민주 역사를 후대에게 가르쳐줄 소중한 공간이 잊혀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오복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재명 당선

최고위원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송갑석, 대의원투표서 2위 불구 10% 미만 그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다.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민 송갑석 후보는 5위 안에 들지 못해 탈락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KSPD돔에서 열린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이재명 후보가 총 득표율 77.7%로 박용진 후보(22.23%)를 제치고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기록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역대 당 대표 득표율 중 가장 높은 것이다. 기존 최고 득표율은 2020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기록했던 60.77%였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 25.20%, 고민정 후보 19.33%, 박찬대 후보 14.20%, 서영교 후보 14.19%, 장경태 후

보 12.39%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해 5명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송갑석 후보는 10.81%로 6위, 고민정 후보는 3.88%로 7위였다.

운영덕 후보와 단일화하며 지도부 진임을 노렸던 비이재명계 송갑석 후보는 대의원 투표에서 2위를 기록했으나 권리당원과 국민·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 10% 미만 지지율에 그치며 당선권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거대한 함선으로 비유되는 민주당의 새로운 선장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신임이 대표의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 ‘체질개선’과 ‘통합’이란 목소리가 많다.

특히 이번 전당 과정에서 나타난 저조한 호남 지역 투표율이 보여주듯 민주당을 향한 텃밭의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당의 통합도 중요한 숙제다. 이번 전당

대회를 통해 당의 주류 세력이 ‘친문(친문재인)’에서 ‘친명(친이재명)’으로 재편됐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지만, 당헌 개정을 놓고 불거진 사당화 논란은 갈등이 언제든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 밖에 ‘개딸’(개혁의 딸)들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노선을 정할 경우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팬덤 정치의 역기능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도 이 대표가 안은 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다”며 “살을 깎고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오늘 우리는 정권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과 단결을 선택했다”며 “2년 뒤 총선에서, 4년 뒤 지선에서, 5년 후 대선에서 오늘 전당



당기 흔드는 신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전달받은 당기를 흔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회는 승리의 진군을 시작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재정기자

고흥-여수 해역 적조 주의보

고흥 외나로도에서 여수 돌산도 해역까지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다.

전남도는 28일 “지난 26일 오후 6시 고흥 외나로도에서 여수 돌산도 해역까지 적조 주의보가 신규 발령됨에 따라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적조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여수시-고흥군 보물바다 연안에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최대 95개체/ml

가 출현했으며 항공 예찰시 소규모 적조 띠가 관찰되고 있다. 코클로디니움 10개체/ml 이상이면 적조 예비주의보, 100개체/ml 이상은 적조 주의보, 1천개체/ml 이상은 적조 경보가 발령된다.

전남도는 적조 발생 우심 해역 58개 지점에 대해 주 3회 예찰하던 것을 매일 예찰로 활동을 강화했다. 또 연안 16

개 시·군 적조 명예감시원 267명을 활용해 수시 예찰에 나서서 한편, 적조 상황 관리와 특보 발령 시 기동대응반 운영·방제활동 지원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적조 준비 기간을 운영했다. /김재정기자

변호사 영입인사	변호사 개업인사
지역민의 성원 속에 날로 성장을 거듭해 온 저희 「법무법인 감동으로」는, 이번엔 서울남부지방법원검정 검사장을 역임한 송갑석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 부검정 검사장을 역임한 안병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동으로의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에게 감동을 드리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처음 출발할 때의 약속을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2. 8. 29.
2022. 8. 29.	▶▶▶ 송갑석 주요 약력 ◀◀◀
대표변호사 송기석 · 장경희 · 이상길	· 순천고등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23기
	· 광주지검 부검정사 · 부산지검등 차장검사
	· 대검찰청 검사장 · 제주지검 검사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안병준 주요 약력 ◀◀◀
	· 서울경문고등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29기
	· 광주지검 검사 · 서울동부지검등 부장검사

■ 주소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7, 301호 (대선동, 금광빌딩) / 대표전화: 062) 227-8500 ■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5층 501호(서초동) / 대표전화: 02) 536-2001

제9회 무등산 문학 백일장

광주매일신문은 유구한 문학의 산실인 호남 향토문학정신을 계승하고 가사문학을 부흥해 지역의 문학미재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 및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9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문인 발굴과 창작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있는 청소년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일반부 / 전국 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2년 8월 2일 ~ 8월 30일까지
- 입상자 발표 : 2022년 9월 15일(목)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 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사안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 학년) 기재할 것
- 기존 발표적이거나 표절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주 최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 원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담양군 · 화순군>